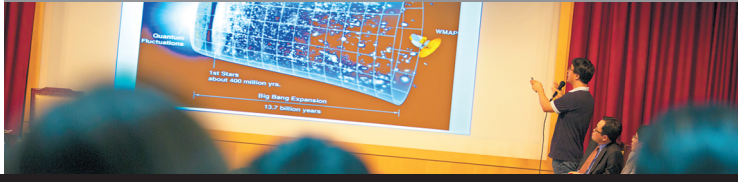


3 » '취업', 인식의 변화 필요하다



8 » 우주와 인간! 'Peace BAR Festival 2014'



학사다이어리 - 2014학년도 2학기 학점포기 신청

■ 일정 : 09. 24(금)까지
■ 내용 : 대상과목은 이수한 과목 중 폐지된 과목, 학점교류형태로 취득한 학점, 사회봉사과 졸업논문에서 F를 취득한 성적, 단, 편입 시 전적대학 학점에서 인정받은 학점과 P/F로 평가하는 과목에서 P를 취득한 성적은 포기 불가함
※ 가능학점은 졸업 전까지 총 6학점 이내

공공기숙사 27개월 '제자리' ... 임대주택 3년 '18건' 허가

총학, 동대문구청 항의방문 건축과, "진행상황 없다"

〈동대문구청〉

공공기숙사 논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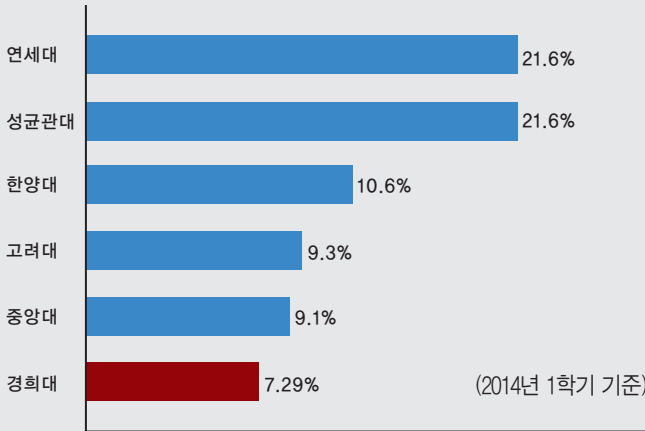
백승철 기자 scho1357@khu.ac.kr

【서울】SPACE21 공공기숙사 착공 지연이 길어지고 있다. 지난 6월 환경영향평가 본안 승인 이후, 8월 중 착공을 예상했으나 동대문구청이 사업계획안을 지속적

으로 반려하며 건축허가를 미루고 있다.

때문에 신속한 공공기숙사 착공을 촉구하는 학생사회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총학생회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숙사 신축을 위한 결의문'을 참석인원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16일에는

〈2014 사립대학 기숙사 수용률〉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대표 20여 명이 동대문구청에 직접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더불어 동대문구청의 건축허가를 촉구하는 3,480명의 공동민원을 동대문구청 건축과에 제출했다.

현재 기숙사 수용률 7.29%

공공기숙사 신축해도 8%

그러나 공동민원 접수 이후에도 '변화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동대문구청 건축과 측은 "민원 접수 이후 진행된 상황 없다"고 전했다. 학교 주변 임대업

자의 민원제기가 계속되자, 동대문구청이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우리신문이 조사한 결과, 임대업자가 주장하는 '대규모 공실발생과 생존권 침해'는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학년도 1학기 기준 서울캠퍼스 재학생수는 18,560명이다. 세화원과 삼익원을 비롯한 행복기숙사, 외부기숙사를 포함한 수용인원은 총 1,354명으로 재학생의 기숙사수용률은 7.29%에 불과하다.

▶5면으로 이어짐

“쓰레기 뒤편 정리만 해줘도 고맙지”

축제 앞두고 들어본 청소노동자의 바람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권오은 기자 typhoon11@khu.ac.kr

#.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캠퍼스(서울캠) 대동제가 개최된다. 10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에는 국제캠퍼스(국제캠)에서도 경희체전과 대동제가 열린다. 즐거운 축제지만, 청소노동자에게는 힘든 기간이기도 하다. 이에 축제를 앞두고 있는 양 캠퍼스 청소노동자 70명을 대상으로 축제에 인해 가장 어려운 점을 물었다. 더불어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도 들어봤다.

설문결과 축제기간에 청소노동자가 느끼는 노동강도는 평소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노동강도를 보통(5)이라고 전제하고, 축제기간의 노동강도를 '매우 약함(0)'에서 '매우 힘들(10)' 사이 중 하나로 표시해달라는 질문에 평균치는 9.09였다.

서울캠의 평균 수치는 9.22, 국제캠의 평균 수치는 8.96이었다. '매우 힘들'이라고 답변한 이가 35명으로, 총 응답자 64명 중 54.6%였다.

깨진 병 담긴 봉투,
“다칠 수도 있다. 배려 부탁”

청소노동자의 노동강도가 올라가는 이유로는 다양한 답변이 돌아왔다. 답변내용의 주요 단어를 정리한 결과 화장실이 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구토, 음식물 쓰레기도 각각 34건과 31건 등장했다. 대체로 주점운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다. 주점을 운영하면서 화장실을 활용해 조리도구나 음식물을 씻는 경우가 많다.

▶4면으로 이어짐



1. 과음하지 말고, 구토는 변기에!
2. 쓰레기, 쓰레기통에 버리기
3.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4. 담배는 '흡연장소'에서 피우자
5. 깨진 병 주의... 분리수거 부탁

비탈에 선 청춘: 황순원, 《나무들 비탈에 서다》

휴머니티칼리지 - 대학주보 공동기획, 교전의 사계 ③

문영희 〈휴머니티칼리지 교수〉

군대 내 가족행위가 상상의 수준을 넘어설 만큼 야만적이고 폭력적이다. 군인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신체적 자유와 정신적 성숙의 중요한 시간을 한시적으로 저당 잡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국가 혹은 군대는 수많은 군인들을,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관심'과 '보호'와 '교정'의 대상으로

삼는다. 질서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혹한 폭력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한다. 청년들은 지금 불안하고 암담하다.

“우리는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 황순원의 장편소설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동호가 현대에게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더 많이 아픈 청춘에 대한 보고서다.

한 말이다.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휴전협정이 성사되기 직전, 마지막 격전지에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른 군인들과, 휴전 후 일상으로 돌아와 전후유증을 겪으며 방황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아픈 청춘'들에 대한 보고서다.

‘자연(전쟁) 상태에서 만인은 만인에게 늑대’라 한 홉스의 말처럼, 작품 속의 군인들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들 모두는 전쟁이 낳은, 상처받은 영혼이자 문제적 개인이다.

선우 상사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가족 모두가 인민군에게 몰살당하는 참화를 겪은 후 복수심에 불타 그 행위에 가담했던 부역자를 총살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손으로 사람을 죽였다는 죄의식에 시달리다 미쳐버린다.

현대는 융성한 군인의 전형이다. 포화 속에서 나약한 동료를 구하고, 부상을 입으면서도 인민군을 처단한다. 임무완수를 위해 작전에 방해 되는, 무고한 여인과 어린아이도 서슴없이 살해하는 역을

▶7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아바타' 팀
김용현(일반대학원 2013) 군
구자훈(일반대학원 2014) 군



273배 빨라지는 미래, 'KOREN망'

최승욱 기자 dotori14@khu.ac.kr

‘점프했다가 착지하기도 전에 뮤직비디오 한 편을 다운받을 수 있는 1초’라는 광고처럼 정보전달의 속도는 나날이 빨라지고 있다. 여기에 다시 한 번 가속페달을 밟은 기술이 있다. 광대역 LTE-A보다 최대 273배 빠른 KOREN망이 그 주인공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주관한 ‘대학생·일반인 네트워크/소프트웨어 창의적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NET 챌린지 캠프’를 보면 KOREN망세상을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에 ‘NET 챌린지 캠프’ 아이디어 부문에서 각각 1위와 2위의 성적으로 입상한 컴퓨터공학과 ‘아바타’팀 김용현(일반대학원 2013) 팀장과 ‘너구리’팀 구자훈(일반대학원 2014) 군을 만나봤다.

대화에 단순한 흥미로 참가했지만 이들의 KOREN망을 활용한 아이디어는 영화 속에서도 볼 수 있을 법한 것이었다.

1등을 수상한 ‘아바타’팀은 Head Mounted Display(HMD)를 통해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HMD는 안경과 같은 형태의 영상표시장치인데 이것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일반인의 시각보다 넓은 ‘광시야각’을 구현해낸다. HMD를 통해 3D영화를 보는 것처럼 눈앞에 입체적이고 실제와 같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다.

또한 동작 인식 시스템인 키넥트(Kinect)와 결합해 외부의 동작을 인식할 수 있게 했다. 김 군은 “KOREN망을 이용한 실시

간 *클라우드 스트리밍이 이뤄진다면 HMD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가상현실을 고화질로 생생하게 구현할 수 있다”며 “이 기술을 통해 실제 현실에서의 회의, 쇼핑 등 다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너구리’팀은 고속 데이터망을 통한 실시간 방송서비스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구 군은 “KOREN망을 이용한다면 방송국의 방송송출을 위해 차량이나 고가의 장비 없이 개인도 방송에 손쉽게 방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군의 아이디어가 구현되면, 개인방송도 HD화질로 영상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아이디어가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들이 대회에서 수상한 바탕에는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있었다. ‘NET 챌린지 캠프’ 아이디어 부문에서 수상한 두 팀은 오는 11월에 열릴 경진 부문에서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때문에 수상 이후에도 두 팀은 밤낮으로 노력 중이다. 그러면서도 자신감을 보였다. 김 팀장은 “아이디어 분야에서 1등을 한 만큼 계획대로 진행시켜 가면, 경진 부문에서도 우승해 또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팀이 개척해나갈 KOREN망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지 2개월 뒤에 확인할 수 있다.

*클라우드 스트리밍

데이터를 네트워크 연결된 중앙 컴퓨터에 저장시켜, 네트워크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사령

명 〈편집팀장〉 국주연(언론정보학 2010)

시선

사설

교수의회 비대위
처음 목적 상기해야

유례없는 예산 삭감으로 드러난 대학의 재정 상태,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 체계, 선뜻 동의하기 힘든 리더십과 이뤄지지 않는 소통, 결국 이것들로 인해 나타나는 교육과 연구행정의 난맥상을 어떻게든 정상화해보자는 것이 교수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가만들어진 목적이다. 그리고 말 그렇듯이 ‘비상’ 한 노력들이 필요해보였다.

많은 구성원이 비대위에 주목한 것은 오랜동안 침묵하던 교수사회가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보여주었다는데 있었다. 다른말로 하면 교수사회가 직접 나설만큼 대학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에 다름아니었기에 절박하고도 기대에 찬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월요일의 교수 사회는 실망스러울 뿐이다. 날 선 공방과 그로인한 분열. 지난 15일에 열린 교수의회 전체 대의원회는 애초의 목적을 인식이나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날의 회의는 불필요한 갈등의 하이라이트를 보는 듯했다. 이게 끝인가. 지난해 교수연대 결성으로 시작된 대학개혁의 가능성은 이대로 접게되는가.

비대위 위원이나 교수의회 회장단은 현재 위치에서 물러날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총사퇴를, 그것도 아주 빠른 시점에 말이다.

지금이라도 교수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헤게모니 다툼은 목적인 바를 조금이라도 달성한 이후로 미뤄둬야 한다. 그리고 냉정해야 한다. 적지않은 사람들의 머리를 끄덕이게 했던 ‘교수연대’의 미덕은 끝까지 이성적이라고 노력했다는 데 있다. 지금의 비대위는 출발부터 너무 흥분해있는 것 같다. 폭언과 협박은 애교에 가깝다.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과 지지세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너무도 부족하다. 몇몇 분들의 항의방문 외에는 보여지는 것이 없다. 대학, 그것도 교수사회에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은 아닌 듯하다.

교수의회 역시 비대위에 대해 비판자의 위치에 서는게 정당한지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비대위는 애초 교수의회가 잉태해놓은 스스로의 몸과 같다. 그런 비대위가 제 갈길을 못갈 때는 교수의회 몫의 책임도 받은 될 것이다.

서로 정치적이라고 날 선 공방을 하는 현 비대위 측 인사들과 교수의회 지도부는 이제 전체 교수사회의 신뢰를 받기 힘들어보인다. 그렇다면 비대위 위원이나 교수의회 회장단은 현재의 위치에서 물러날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총사퇴를, 그것도 아주 빠른 시점에 말이다. 그리고 그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고 인정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것이 교수의회 비상대책위가 다시금 신뢰와 권위를 갖게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교수의회나 비대위의 몇몇 교수들이 회장이나 위원장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애초 그들이 들고 나온 의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치과병원,
치과분야 최초
의료기관인증 획득

미디어 여론동향 | 2014. 9. 15 ~ 21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암센터는 최근 암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통합치유 프로그램을 개설했다고 밝혔다.(강동경희대한방병원, 암환자 통합치유 프로그램 개설/헬스경향, 2014.9.17) 통합치유 프로그램 대상자는 항암치료 중이거나 항암치료 휴식기인 암환자, 암성 피로나 식욕부진, 암성통증 등으로 삶의 질이 낮아진 환자들이다. 통합치유 프로그램은 ▲불안·우울·수면장애·통증을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이주의 주제 - 축제기간 고된 ‘청소노동자’

‘우리’라고 답하는 축제가 되길

이진우 기자

(urusa93@khu.ac.kr)



서울캠퍼스 대동제를 앞두고 양 캠퍼스 청소노동자를 만났다. 축제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듣기위해 설문지를 들고, 단과대학 구석구석 ‘휴게실’을 찾았다. 고된 노동 중간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는데, 오히려 반가워했다. 그들은 선뜻 과일을 건네며, 편한 자리를 내줬다.

진솔하게 털어놓는 이야기는 ‘일상’이었지만, 익숙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는 흥미로웠고, 낯을 익히는 노하우부터 무시당했던 경험까지 듣다보니 가슴 아팠다. 편집실에 돌아와 설문지에 적힌 단어들을 분류해나갔다. 평소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적힌 ‘인격 무시’, ‘힘들어도 내일인데 뭐...’와 같은 답변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분석은 더더졌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거나, 가래침을 바닥에 함부로 뱉지 말아달라는 부탁이나 심지어 변을 번기에 뽐달라는 이야기까지 읽었을 때는 이들이 일하는 곳이 ‘대학교’인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정리하고 있는 기자도, 축제 때 어떤 연예인이 오는지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대학생’인 것을 보면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말이다.

이런 청소노동자의 ‘낯선’ 일상은 축제 때 더 힘들어진다. 행사와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남기는 쓰레기는 평소보다 배는 많아지기 때문이다. 즐기는 사람 따로, 고생하는 사람 따로인 축제 풍경은 이제 더이상 반복돼선 안 된다.

지난 1학기, 축제가 없었던 이유를 떠올려보자.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재난 앞에, 우리는 축제를 스스로 포기했다. 아쉬워한 이도 있었겠지만, ‘함께’ 공감한 슬픔에 비할 바는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였던 까닭이다. 슬픈 감정을 구태여 다시 강조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연기됐었던 축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타인과 함께 하고자 했던 ‘우리’라는 공감대를 상기시켜야 한다. 이를 토대로 그동안의 축제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아주 ‘당연한’ 것들을 지킬 필요가 있다. 사실 가장 기억에 남은 답들은 따로 있다. ‘몸 상하니 과음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치우지 않으면, 남들이 힘들어진다’,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끝나기만 바란다’는 걱정어린 말들이다. 노동강도가 평소보다 매우 힘들다는 답변 바로 밑에 적혀있는, 자신의 어려움보다 ‘자식 같은 학생’을 걱정하고 배려하는 이 말들 앞에 어떤 답을 건넬지 축제동안 ‘함께’ 답해보자.

PS- 축제를 뜻하는 독일어 ‘파이어(Feier)’는 라틴어 ‘페리에’(feriae)에서 파생된 말이라고 한다. 페리에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란 의미다.

이, 2014.9.17) 2010년부터 시행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인증은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박영국 치과대학병원장은 “인증기관에 걸 맞는 효율적이고 환자 편의적인 진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인증으로 경희의료원은 경희대학교병원(2011년 1월), 경희대학교한방병원(2014년 4월)을 포함해 3개 병원 모두 의료기관인증을 획득했다.

우리학교 양재덕(태권도학 2012) 선수가 강원도 태백시 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3회 국방부 장관기 태권도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제천출신 양재덕, 국방부장관기 태권도 대회 ‘금’/뉴시스, 2014.9.18) 국내 3대 메이저 태권도 대회 중 하나인 국방부 장관기 대회는 16~23일까지 7개팀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다. 68kg급에 출전한 양재덕 선수는 17일과 18일 경기에서 1·3군 사령부, 2작전 사령부 선수를 차례로 누르고 국방부 장관기를 차지했다.

그래요 알아요
당신은 바쁘시겠죠

세시봉

권오은
(편집장)



#1. 지난주 당신께 보낸 문자가 80여 통. 메일이 4통 쯤 됩니다. 전화통화 시간은 30분, 그중에서 당신이 받은 시간은 10분이 채 되지 않지요. 익숙했던 일입니다. 늘 바쁘단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좀 많았어요. 매번 새로운 위원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어디에서 언제 열리는지 저도 왕왕 헛갈립니다. 왜 진행되는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요.

#2. 당신이 2번째 전화를 피했을 때일까요. 학생인데 ‘공부 좀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복불복 취업률에서 아무래도 불복보다 복이 나올테니까요. 수전 손택의 《타인의 고통》을 다시 읽었습니다. 손택이 지적하는 사진 그리고 매체의 문제에 무릎을 치며, 저는 뉴스를 살폈지요. 이론과 실천 사이에 괴리는 쉽게 좁혀지지 않더군요. 경희미래협약이었던가요? 그래요, 그 때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치는 채 성숙하지도 못하고 ‘문장’으로만 남았으니까요.

#3. 뉴스 속 대학가가 시끌시끌합니다. 건국대 이사회는 올해 초부터 시끌시끌하더니, 며느리부터 아들과 딸이 총출동하는 리얼 막장드라마를 찍고 있어요. 상지대는 제가 처음 홀로 강원도를 향했던 2010년의 9월에서 지금까지 오히려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서고 있구요. 이 와중에 교육부는 노란리본의 정치적 의미를 대단하게 해석했었어요. 또 대학구조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산적한 문제에 가려져 있는 우리학교의 1.4% 차등감축안은 잠깐 유예의 시간을 번 셈이네요. 다시 한 번 문자를 당신께 보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에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4. 더 이상 볼 뉴스도 없어, 이제 글로 넘어갔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 악의 평범성에 관한 보고서》 서평을 보다가 문득 앞서 이야기했던 대학에서도 생각이 게을러, 결국 ‘악’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었겠지 하고 끄덕였습니다. 악셀 호네프트의 〈인정 투쟁〉에 대한 이야기까지 넘어갔는데, 잠깐 건 전화를 다른 이가 받고는 당신이 자리를 잠시 비웠다고 이야기해주더군요. 호네프트가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에 따르자면, 제가 아렌트의 글을 읽고 생각했던 것은 ‘정의의 타자’를 포용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고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5. 간단히 말하자면, 당신이 전화를 피하고 만남을 피한다는 것을 제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예요. 하지만 대화가 부족해지면, 생각이 게을러지고 아렌트가 말한 대로 너무나 평범한 악은 이런 게으름들 속에서 덩치를 키워간다는 것을 전하고 싶을 뿐이에요. 소위 ‘문제 대학’들이 어제 오늘날만 저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당신께 문자를, 전화를 정 안 되면 또 찾아가 볼 참이에요. 취재력! 이게 부족한 것이지, 당신의 문제는 아니라고 믿으니까요. 핸드폰을 다시 한 번 들었습니다. 당신을 취재원이라고 저장해놓기는 너무 멀어 보여, ‘미래-소통’으로 해놨어요. 당신이 좋아하는 이름인 것 같아서.

알림

대학주보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뉴스와 정보는 물론, 취재과정도 독자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www.facebook.com/khunews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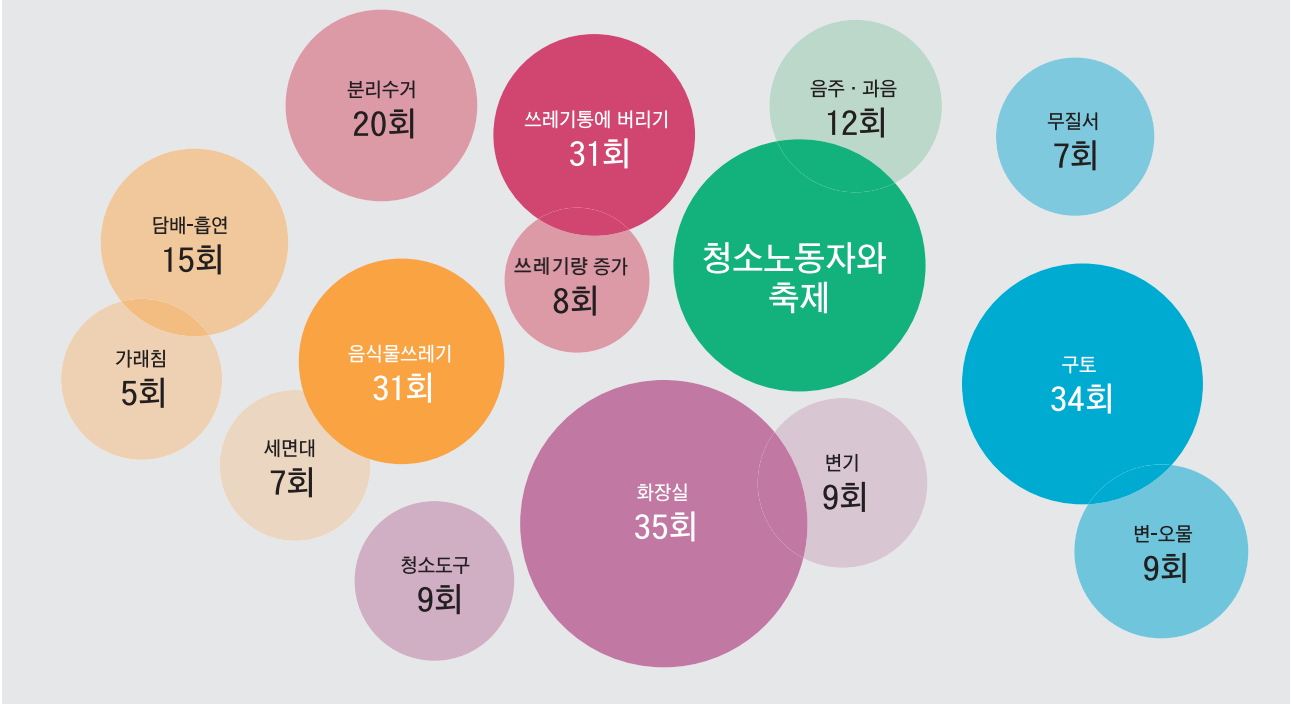
발행·편집인 조인원 | 주간 김민천 | 편집장 권오은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자이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보도



청소노동자가 축제중 당부하고 싶은것은?



▶1면에서 이어짐

이후에 다시 음식물 쓰레기와 과음으로 인한 구토도 화장실로 돌아오는 순환이 축제 내내 발생하기 때문이다.

A 청소노동자는 “축제니가 쓰레기 양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 근데 과음해서 토해놓으면, 그건 우리도 치우기 역해요. 많이 바라지도 않아, 정 구토가 나면 화장실 변기에 해놔요 좋겠어”라고 말했다. B 청소노동자는 “음식물 쓰레기는 특히 분리를 잘 해놔야 하는데 그냥 섞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우리도 치우기 힘들어요”라고 말했다.

답변 내용 중 주요 단어에는 ‘쓰레기통(31건)’ ‘분리수거(20건)’ ‘청소도구

(9건)’도 있었는데, 이는 결국 뒷정리 문제인 셈이다. 매년 대동제마다 양 캠퍼스 학생회에서 자체적으로 뒷정리를 강조했지만, ‘문제가 심각한’ 경우도 상당수였다는 주장이다. C 청소노동자는 “학생들이 조금만 도와줘도 우리가 훨씬 수월해요”라며 “술병은 술병대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분리수거해 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술병의 경우 유리이기 때문에, 깨졌을 때는 무리하게 봉투에 담지 말아달라는 의견도 많았다. D 청소노동자는 “봉투에 깨진 병이 있는지 모르고 들다가, 쓰레기가 모두 쏟아지기도 했어”라며 “다치기라도 해봐. 서로 배려해줬으면 참 좋겠어”라고 답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또

지적된 문제다. 특히 과음으로 인한 대학가 축제기간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 6월 12일 보건복지부는 병원, 대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음주와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캠 총학생회는 지난 12일 ‘대안문화 없이 학내음주만 금지한다면, 결국 학외에서 똑같이 반복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학생자치를 통해 음주문화 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 시작으로 같은 날 주점을 운영하는 단체들을 모아 ‘주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신분증 검사를 진행하겠다 ▲주문시 (손님에게) 안전한 주점을 위한 약속을 받겠다

▲뒷정리를 깨끗이 하겠다 ▲앞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2015년 대동제 주점장소 선정에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 등을 다짐했다.

주점 외에도 청소노동자들은 담배(15건), 가래침(5건)도 문제로 지적했다. E 청소노동자는 “어느 날은 계단이 담뱃재와 공초로 새하얗게 뒤덮여 있었다”며 “지정된 장소의 쓰레기통에 버려달라”고 말했다.

서경지부 경희대분회 백영란 분회장은 “예전보다 학생들이 많이 나아졌다”며 “청소노동자들도 노동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뒷마무리만 잘 해주면 훨씬 수월한 만큼, 조금만 더 신경 써달라”고 전했다.

‘High KHlass’ 축제로 즐기는 교육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서울】 ‘Class가 다른 축제, High KHlass’, 교육을 주제로 열리는 가을 대동제가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캠퍼스 곳곳에서 열린다. 축제의 주제가 ‘교육’인 만큼 관련 프로그램이 다채롭다. 특히 자원봉사단이 ‘대나무숲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 관련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모인 의견들은 올해 11월 이후 선임될 신입 총장에게 ‘학생들의 의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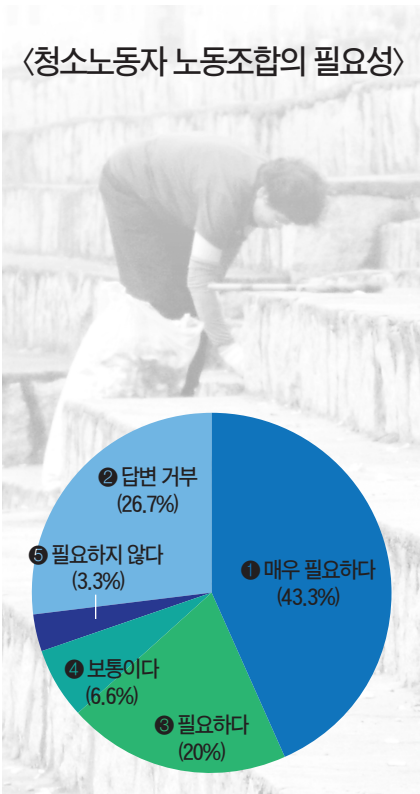
반 수업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웃음’, ‘캘리그래피’ 주제의 이색수업도 무료로 진행된다.

한편 총여학생회에서 준비한 ‘레인보우대동제’는 여성, 남성, 성소수자, 청소년, 비정규직, 외국인, 장애인이 겪는 7가지 차별을 공유하는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행복한 우리집’, ‘차별의 벽’, ‘퀴즈’ 세 가지 부스를 설치하여 평소 느꼈던 차별들에 대해 얘기하고 그것을 송관 등에 적고, 부수는 활동이 기획되었다.

〈가을대동제 일정표〉

	청운관	노천극장	학내곳곳		
24일	미니게임* (12:00~18:00)	1부 개막식+유회제(신명) (18:00~19:00) 2부 응원콘서트 초대가수:채리필터	경통연공연 (정문 14:00) 하늘연달본선 (크라운관 18:00)	경희 사랑영화제 24일:아바웃타임 (네오관 104호) 연애의온도 (네오관 105호) 25일:HER(네오관 104호)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네오관 503호) (19:00~) 이색수업 24일:웃음(네오관 503호), 25일:캘리그래피 (네오관 B201호) (16:00~17:00)	미대 전시회 (마울버스 정류장 편스 앞)
25일	청춘콘서트카페 (12:00~16:00)	총동연 인디문화제 (18:00~)			
26일	잔술주점 (11:00~16:00)	페막식 조별과제잔축사UCC, 사진콘테스트 시상* 초대가수:결스데이, 플라이투더스카이 (18:00~)	경통연 마당극 (중대관 앞 14:00) 음대 라이브카페 (마로니에길 19:00)		



캠퍼스 리크루팅 일정				
행 사 명	모집부문	일 시	장 소	
IBK 기업은행 채용면담	2014 하반기 공채	9.22(월) 10:00~16:00	청운관 1층 상담실	
IBK 기업은행 채용설명회	2014 하반기 공채	9.22(월) 10:00~16:00	청운관 B117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채용면담	상시채용	9.22(월) 13: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삼성엘스토토리 채용설명회	2014 하반기 공채	9.22(월) 14:00~16: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항공사승무원(남,여) 채용면담	항공사 승무원	9.24(수) 10:3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동부화재 채용면담	2014 하반기 공채	9.24(수) 13: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이베이코리아 채용설명회	2014 하반기 공채	9.24(수) 16:00~18:00	청운관 B117호	
한국타이어 채용면담	2014 하반기 공채	9.24(수) 10:00~17:00 9.25(목)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한국타이어 채용설명회	2014 하반기 공채	9.25(목) 16:00~18: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행정직 채용면담	행정직	9.25(목) 10: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행정직 채용설명회	행정직	9.25(목) 13:00~15:00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경희대학교 재(휴)학생 및 졸업생 누구나 사전신청 없이 참석 가능(사전 시간 5분전까지 착석)
- 기타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카렌다를 참고해 주십시오.
- 채용설명회 관련 출석협조전 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배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1:1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턴트	일시	장소	신청방법
개인상담	분야별 컨설턴트 4명	월 ~ 금 (각 컨설턴트별 일정 상이함)	오비스홀 354호~356호 제1법107-2호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메뉴에서 신청
집단상담	이중구 교수 (취진처 연구실장)금융권,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네오관 103호	
On Line Off Line 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컨설턴트별 일정, 컨설팅 내용 확인 후 신청)

● 상담 신청자 의무사항 : 취업준비도 검사 참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 후 각 1회(총 2회) 참여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날 취소 불가 (상담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지참(필수)

※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2014~2학기
매그놀리아 인증제 학생대상 설명회
일자 : 2014.9.30(화) 시간 : 15:30~17:00
장소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시청각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의 비교과과정 활동, 즉 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학생활동을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 개인역량을 수지화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증하는 인증제도

● 인증 요건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3개 영역으로 구분된 비교과 과정에 대해 영역별 최소 인증점수(500점)를 달성하고 total 2,000점 이상 달성 시 인증!

● 특전

- 지속적인 개인역량 관리
- 매그놀리아 인증제 인증서 발급
- 매그놀리아 인증제 학생활동 지원비 지급
- 인증내역확인서 발급

● 영역별 매당 비교과 프로그램(학점인정 프로그램 제외)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
지식 및 전인적 측면 교양, 지식, 정보역량	글로벌 역량 강화, 외국어 능력, 윤리, 사회연계	창조적 사회인, 취업역량 봉사, 윤리, 사회연계
• K-CESA, TOCT • 생활·학사·외국인 등 취업 외 상담 • 진로대학 지도교수 상담 • 진시회·발표회·공모전 참여 • 문화제·축제·학술제 참여 • 독창 및 프로그램 참여 • 교내·외 활동 및 인턴	• 어학 성적 • 동아리 활동, 봉사 G-TEP • 외국어 토크, 필문어, 중국어 • 스펙터 참여, 라시어어 • 학문·학자 • 해외 봉사 • 독창 및 프로그램 참여 • 해외 활동 및 인턴	• 취업관련 상담 (ex.취진처 1:1 상담) • 관내교내·외 봉사 • 어학 외 자격증 • 경진대회 수상 • 논문게재 • 독창 및 프로그램 참여 • 교내·외 활동 및 인턴

매그놀리아 인증제 담당부서 안내

취업진로지원처

- 홈페이지 : <http://job1.khu.ac.kr>(서울), <http://career.khu.ac.kr>(국제)
- 전화문의 : 02)961-0167~8(서울), 031)201-3066~9(국제)
- 방문문의 : 청운관 1층(서울), 학생회동 1층(국제)
- 메일문의 : magace@khu.ac.kr
- 상담예약 : 종합정보시스템

경희대학교 취업진로지원처

대의원회 ‘휴회’, 비대위 자격정지

교수의회 어디로 가나

이재은 기자 jenny95@khu.ac.kr
이승연 기자 leesy0317@khu.ac.kr

교수의회 내부에서 불거진 비상대책 위원회(비대위) 체제 논란이, 지난 15일 전체 대의원회마저 과행으로 끝나면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교수의회 전체 대의원회가 지난 15일 대의원 1/2 참석으로 개회됐으나, 비대위 존속여부의결에 반발한 서울지회 대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결국 ‘휴정’에 들어갔다. 교수의회 동석호(의학) 의장은 “서울지회 퇴장 이후에도 회의구성 요건은 충족됐다”며 “다만 표결은 서울지회도 함께 해야 한다는 생각에 비대위의 기능만 정지하고 잠정 7일간의 휴정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22일까지 3차 전체

대의원회는 ‘휴정’ 상태이고, 교수의회 비대위라는 명칭으로 공식적인 활동은 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비대위 존속여부 ‘투표’에 대해 A대의원은 “비대위 해체를 투표하는 것 자체가, ‘의회 내부 분열’을 만드는 일”이라며 “투표를 통해 해체되도, 또 되지 않아도 팽팽하게 맞서는 집단끼리 갈등만 깊어진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비대위를 재구성해, 특별위원회로 역할을 규정하고 현 14대 의회로 활동시기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되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대위 존속 논란 외에도 대의원 자격시비부터 회의록 조작논란, 폭언·협박 공방 등의 문제가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지회 탈퇴설’까지 나오고 있어 교수사회 정상화를 위한 과정이 험난해 보인다.

대학평의원회 개최 개방이사 논의 시작하나

일반이사 모두 선임

황경선 기자 sunny96@khu.ac.kr

학교법인 경희학원 이사회가 지난 15일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일반이사 공식 한 자리에 장현수 전 이사를 선임했다. 장 전 이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 차례 개방이사직을 수행한 바 있다. 다만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법적으로 임원승인이 나지는 않은 상태다. 법인사무국 측은 “신원조사를 비롯한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라며 “임원승인 이후부터 정식이사로서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 8월 학생개방이사 활동으로 관심을 모았던 개방이사 선임은 대학평의원회 산하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구성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지난 2013년 1월 29일 임기 만료된 최병선 전 개방이사 후임 자리가 약 20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다. 경희학원 정관에 명시된,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무색하다. 지금까지 개방이사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과정을 네 차례 진행했지만 절차상 문제로 교육부 임

원승인 반려, 이사회 선임투표 부결, 추천자 부적격 등의 이유로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지난달 27일 대학평의원회 제2차 정기회의가 개최됐으나, 동석호 의장이 “학생개방이사의 법적 요건을 교육부 등의 유관부서에 검토 의뢰”하는 것을 제안한 뒤 다음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고 폐회했다.

이후 22일이 지날 때까지 대학평의원회가 개최되지 않던 중 지난 18일 전체 평의원 21명 중 직원 평의원 5명과 학생 평의원 4명, 총 9명이 임시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대학평위원회 임시회의 소집규정 요건인 ‘평의원 4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를 만족해 이번주 중으로 대학평의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총학생회 박이람(사학 2008) 회장은 “대학평의원회에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대학평의원회 추천 몫 2자리 중 하나를 학생대표로 요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21명 중 가장 많은 8명의 평의원이 있는 교수사회 내부 논란이 지속되면서, 원만한 개방이사 추천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6일 동대문구청에 공동민원을 접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은 오지 않았다

▶1면에서 이어짐

공공기숙사가 신축돼 수용인원이 926명 늘어나도 8%다. 지난해 기준 연세대(21.6%)나 성균관대(21.6%)와 비교할 때 턱없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체 재학생 18,560명 중 41.65%에 해당하는 서울거주 학생 7,218명을 제외한 11,342명은 기숙사 및 임대주택의 잠재적 수용자다. 실제로 지난 학기 기숙사 평균 입사경쟁률은 3.5:1에 이르렀다. 신축기숙사가 지어져도 약 2,400여 명은 입사경쟁에서 탈락하게 된다. 때문에 학교는 ‘착한자취방이 존재한다면’ 500여 명을 추가 선발해 중계해주겠다고 임대업자들에게 의견을 전했다, ‘무조건 수용인원 500명’을 고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기역 인근 건물은 매년 증가, 기숙사 착공만 지연”

지난 3년 간 회기·이문지역에 들어선 오피스텔, 원룸 등을 감안하면 임대업자의 ‘공실’ 우려의 타당성은 더 떨어진다. 동대문구청에 공지된 건축현황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공공주택’ 및 ‘오피스텔’ 등이 18채 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이 건물들의 *총면적(연면적) 합계 15,124㎡으로 기숙사 총면적 중 ‘숙박공간’에 해당하는 교육연구시설 면적(10,186㎡)에 1.5배 규모다.

	공공기숙사	회기·이문 민간임대주택
기간	2012년 6월 ~	2010년 6월 ~ 2013년 11월
공사진행	건축허가 반려	18동 완공
총면적	10,186㎡ (교육실습공간)	15,124㎡

공공기숙사 관계자는 “회기역 인근 건물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기숙사 착공만 지연되고 있다”며 “생존권이 문제라면 대형 민간 임대업자도 문제 삼아야지, 학교만 트집 잡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전반기 오피스텔 및 다가구 주택 임대수익률을 살펴보면, 수익문제도 결국 ‘특이한 경우’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지역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연 5.62%로 지난해 5.65%에 비해 0.03%포인트 하락한 반면, 동대문구(6.42%)는 연 6%대의 높은 임대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문동의 경우 다가구주택의 수익률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생존권’과 배치되는 수치들이다.

기숙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손해도 가중되고 있다. 총 건설사업비로 책정된 220억 원 중 약 37%에 해당하는 81억 4,300만 원이 사학진흥재단에서 3.96%이율로 대출해준 금액이다. 시중대출이율보다 낮은 사실이지만 81억 4,300

만원의 예금이율이 2.5% 수준임을 감안할 때 매년 은행에 예치함으로써 얻는 이자보다 사학진흥재단에 납부해야할 이자가 더 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가 매년 1억 2,000여 만 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숙사 선정 2년, 이자손해만 ‘2억 원’

지난 2012년 6월 사업에 선정된 이후 약 2년이 지난 지금, 벌써 이자손해만 2억 원을 넘어선 것이다. 앞으로 공사기간과 사용승인 절차 등을 감안하면 손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총학생회 박이람(사학 2008) 회장은 “공동민원에 대한 동대문구청 건축과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건축과의 답변에 따라 앞으로의 계획도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주 동대문구의회 의원과도 만나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총면적(연면적) :** 부동산 용어로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모두 합한 것이다.

2014 하반기
리크루팅 안내

채용설명회

*일정이 변경되거나 회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회사별 모집요강은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career.khu.ac.kr>) 공지사항 참조

*장소설명 : 피스홀-도서관3층 피스홀, 국경-국제경영대학관, 공대-공과대학관, 전정-전자정보대학관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2 - 현대자동차	3 - LG디스플레이	4 - 현대중공업	5
8	9	10	11	12 - 포스코 그룹
15	16 - 현대엔지니어링 - 현대오트모버	17 - 현대건설 - LS그룹	18 - 두산그룹	19 - 대우건설
22	23 - 효성그룹 - NHN 엔터테인먼트	24	25 - 한국타이어	26
29	30			

2014 하반기
리크루팅 안내

채용상담

*일정이 변경되거나 회사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수시로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회사별 모집요강은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http://career.khu.ac.kr>) 공지사항 참조

*장소설명 : 피스홀-도서관3층 피스홀, 국경-국제경영대학관, 공대-공과대학관, 전정-전자정보대학관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1	2	3	4 - 현대중공업 - 현대그룹(만도, 인도빌라-한라스텍) - KTDS - 메그니엠티온 -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5 - 현대중공업
8	9	10	11 - 코오롱그룹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12 - 포스코 그룹
15	16 - 현대엔지니어링 - SK케미칼	17 - 휴비스 - 삼성전자 O&M부	18 - 두산그룹 - OCI	19 - 대우건설
22	23 - 효성그룹 - NHN 엔터테인먼트	24	25	26
29	30			

9월

/채용설명회/

기업명	일시	장소
현대자동차	9/2(화) 16:00-18:00	도서관 3층 피스홀
LG 디스플레이	9/3(수) 14:00-16:00	도서관 3층 피스홀
현대중공업	9/4(목), 15:00-16:00	국경 시청각실(106호)
포스코	9/12(금), 14:00-16:00	도서관 3층 피스홀
현대오트모버	9/15(월), 16:00-18:00	국경 시청각실(106호)
현대엔지니어링	9/15(월), 15:00-17:00	도서관 3층 르네상스홀
현대건설	9/16(화), 15:00-17:00	국경 시청각실(106호)
LS그룹	9/16(화), 16:00-18:00	도서관 3층 르네상스홀
두산그룹	9/18(목), 14:00-16:00	국경 시청각실(106호)
대우건설	9/19(금), 15:00-18:00	공대 107호
효성그룹	9/22(월), 16:00-18:00	도서관 3층 피스홀
NHN엔터테인먼트	9/22(월), 14:00-15:00	도서관 3층 피스홀
한국타이어	9/25(목), 16:00-18:00	도서관 3층 르네상스홀

9월

/채용상담/

일시	기업명	장소
9/4(목), 10:00-17:00	현대중공업, KTDS, 메그니엠티온, 현대그룹(만도, 인도빌라, 한라스텍),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도서관 1층 로비
9/5(금), 10:00-17:00	현대중공업, 한국 NSK	도서관 1층 로비
9/11(목), 10:00-17:00	코오롱그룹(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도서관 1층 로비
9/12(금), 10:00-17:00	포스코그룹	도서관 1층 로비
9/15(월), 10:00-17:00	현대엔지니어링, SK케미칼	도서관 1층 로비 경영과학관 115호
9/16(화), 10:00-17:00	현대건설, LS그룹	도서관 1층 로비
9/17(수), 10:00-17:00	삼성전자(ODS), 휴비스	도서관 1층 로비 공대 2층 캠퍼스
9/18(목), 10:00-17:00	OCI	공대 2층 캠퍼스
9/19(금), 10:00-17:00	대우건설	공대 2층 캠퍼스
9/22(월), 10:00-17:00	효성그룹, NHN엔터테인먼트	도서관 1층 로비
9/24~25(수, 목), 10:00-17:00	한국타이어	도서관 1층 로비

KHU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Tel . 031-201-3061
Homepage . <http://career.khu.ac.kr>
E-mail . career@khu.ac.kr

KHU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Tel . 031-201-3061
Homepage . <http://career.khu.ac.kr>
E-mail . career@khu.ac.kr

칼럼



특별기고
아시안게임 즐기기



레굴루스는 blog.naver.com/reguluskhu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최초 AG 참가 경희인, 임배영 동문

〈체육학 50, 레슬링〉

‘제17회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이 지난주 금요일 인천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시작으로 16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1986년 서울, 2002년 부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여는 이번 대회는 ‘평화의 물결, 아시아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소속 45개 회원국 선수·임원 1만5천여 명이 참여한다. 선수들은 36개 종목에서 총 439개의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5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하는 대한민국은 선수 831명, 본부임원 60명, 경기임원 177명 등 총 1,068명의 선수단을 출전시켜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90개 이상을 따낸다는 목표다. 특히 경희대 출신 선수들은 이번 대회에서도 모교를 빛내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아시안게임 대회를 들고 입장하는 8명의 선수 중 4명이 경희대 출신일 정도로 아시안게임에서의 경희대 스포츠의 위상은 매우 높다.

신정희(체육학 82) 씨, 여흥철(체육학 90) 교수, 윤경신(체육학 92) 선수, 현정화(체육대학원 2001) 선수 등 4명이 그 주인공이다. 경희대 출신 선수 14명(졸업생 포함)을 비롯해 코칭스텝, 심판위원, 경기위원장 등 총 26명의 선수단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선수단의 ‘금빛 사냥’에 동참한다.

첫 참가는 마닐라 아시안게임

경희대의 아시안게임 참가 역사는 1954년 마닐라 아시안게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레슬링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임배영(체육학 50, 현 인천시 체육인회 회장) 선수가 바로 그 주인공. 전쟁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1954년, 레슬링 웰터급에 출전한 그는 동메달을 거머쥐며 아시안게임에 처음 출전한 대한민국이 대회 3위에 오르는데 기여했다. 현재 인천시 체육인회 회장을 역임 중인 그는 지난 13일 인천아시안게임 성화 봉송 두 번째 주자로 나서 아시안 게임의 성공을 기원했다.

복싱의 송순천(체육학 57) 선수도 다음 대회였던 1958년 도쿄 아시안게임에서 경희대의 메달 퍼레이드에 동참했다. 당시 체육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송순천

은 복싱 페더급에 출전해 당당하게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특히 그는 고교 3학년이던 1956년 멜버른 올림픽 밴텀급 결승전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판정패해 은메달(대한민국 최초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유명하다.

경희대의 아시안게임 최초 금메달은 복싱 김기수(체육학 60)의 몫이었다. 1958년 도쿄 아시안게임에 고교생 신분으로 참가한 그는 복싱 웰터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스타탄생을 알렸다. 그는 1966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이탈리아의 리노 네페부티를 꺾고 우리나라 프로복싱선수 최초로 세계 챔피언의 자리에 올랐다.

‘아시아의 헤라클레스’ 원신희(체육학 65)는 1974년 테헤란 대회 역대 라이트급에서 인상(130kg)·용상(165kg)·합계(295kg) 3관왕에 올랐다. 대한민국 최초로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른 그의 기록은 86년이 되어서야 남자양궁 4관왕 양창훈에 의해 깨졌다. 또한 대한민국 체조의 전설 여흥철(체육학 90)은 대한민국 체조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다. 94년 히로시마 대회와 98년 방콕 대회도마 부문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그는 현재 경희대 체육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아시아 최고 스프린터로 손꼽혔던 육상

의 이진일(체육학 91) 선수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94년 히로시마 대회에서 800m와 1600m 계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2관왕을 차지한 데 이어 98년 방콕 대회에서도 800m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대회 2연패를 차지했다. 94년 전국육상선수권 800m에서 그가 기록한 1분 44초 14의 기록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다. 오랜 기간 육상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했던 그는 현재 원주시청 육상팀 감독으로 재직하는 동시에 우리학교 체육학과에서 육상수업을 겸임하는 등 후진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이후에도 12개의 금메달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아시안게임의 역사는 우리학교가 앞장섰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다.

경희대의 아시안게임은 진행형

축구의 김진수(스포츠지도학 2011) 선수도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대표팀 이광종호의 황태자로 꼽히고 있다. 최근 일본의 알비렉스 니가타에서 독일의 호펜하임으로 이적한 그는 대한민국 축구에 24년 만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안겨줄 적임자라는 평이다.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브라질 월드컵 대표 명단에서 탈락해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으나, 이번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통해 그 설움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우리학교 태권도부 중 유일하게 아시안 게임에 출전하는 여자 49kg급의 박선아(스포츠지도학 2014) 선수 역시 금메달 기대주 중 하나다. 대표선발전 최종평가전에서 효정의 김다휘 선수를 8-6으로 꺾고 태극마크를 단 박선아 선수는 태권도 대표팀 감동기 감독이 구상하는 금메달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디펜딩 챔피언’ 남자 핸드볼 역시 강력한 금메달 후보다. 1986년 서울 대회부터 2002 부산 대회까지 대회 5연패, 2006 도하 아시안게임에서 그 흐름이 잠시 끊겼지만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다시 금메달을 찾아온 대한민국의 ‘효자종목’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핸드볼 대표팀 김태훈(체육 83) 감독, 정강욱(체육 89) 코치를 비롯해 박경석(스포츠지도 2000) 선수, 이창우(스포츠지도 2002) 선수, 정의경(스포츠지도 2003) 선수, 정수영(스포츠지도 2004) 선수, 이은호(스포츠지도 2008) 선수 등 총 7명의 경희대 출신 핸드볼 선수가 금메달을 노린다.

양궁의 정다소미(스포츠지도 2008) 선수 역시 빼놓으면 섭섭하다. 지난 5월 세계양궁연맹 2차 월드컵 여자부에서 우승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린 정다소미 선수는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부문에 출전할 예정.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의 독주를 막기 위해 경기 방식이 변경되었지만,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각오다.

박찬희(스포츠지도학 2006) 선수와 김종규(스포츠지도학 2010)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농구대표팀도 큰 기대를 걸 만하다. 중국, 이란, 필리핀 등 난적들이 버티고 있지만 안방에서 치러지는 대회이니 만큼 쟁쟁한 경쟁 상대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크다.

이외에 우리학교 농구부장 최부영 감독이 경기위원장으로, 필드하키의 강현영(체육학 93)씨가 국제심판으로, 양궁의 윤미진(스포츠지도 2002)씨가 해설위원으로, 여흥철(체육학 90) 교수가 심판위원으로 아시안게임에 참여해 선수들을 도울 예정이다.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모든 경희인들이 금빛메달을 수놓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교양리포트⑪
마르크스〈자본론〉

자본주의, 똑바로 알자!



필자의 휴머니티스칼리지강좌 ‘자본주의 똑바로 알기’는 마르크스의 명저《자본론》을 통해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 유물론의 기초적인 내용을 습득하기 위해 기획됐다

‘마르크스 《자본론》’이 단어를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1: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에는 관심 없다.”
반응2: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책을 보나?”
반응3: “관심은 있는데 분량도 많고 너무 어려워서 읽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이러한 대답들의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성 싶다. 하지만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다.

우선 반응1과 같은 오해. 마르크스가 쓴 책의 제목이 《자본론資本論》이라는 점을 주목하자.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연구한 것은 사회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닌 자본주의(資本主義)다. 이 엄청난 분량의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본주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내용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

사실 당연하다. 마르크스가 살던 시대에는 사회주의가 실제로 구현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이 살던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탄생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며, 그 현실을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얘기에 관심이 없어서 《자본론》에 관심이 없다는 반응은, 마치 불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



‘자본주의 똑바로 알기’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넘어 대안적 사회를 모색하는 시간이다.

경책을 읽지 않는다는 말과도 같다. 반응2와 같은 오해. 자본론은 1권이 1867년에 간행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140년 정도 전에 나온 책이다. 이런 이유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140년 전에 나온 책이 2008년 4월 《교수신문》에서 교수와 지식인들 1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해방 이후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자본론》보다 더 시대에 뒤떨어진 고전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나 삼국지, 삼국유사, 아라비안나이트 등은 아직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읽고 있다. 하물며 지금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단지 140년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주의에 대해 탁월하게 분석해낸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폄하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반응3은 사실 오해가 아니라 충분한 근

거가 있다. 전체 3권으로 이루어진 엄청난 분량에, 생소한 단어들과 난해한 문장들을 접하면 그 누구라도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필자도 처음 《자본론》을 읽을 때 무척이나 힘들었던 경험이 떠오른다. 용기를 내어 《자본론》을 읽기 시작한 사람들도 대부분 처음에 나오는 ‘상품과 화폐’ 부분에서 좌절하고 책을 덮는 것을 많이 보았다. 마치 고등학교 때 수학 정석을 공부하면, 앞에 나오는 집합 부분만 책이 새까맣게 되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해야 할까.

‘자본주의 똑바로 알기’는 바로 반응3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업이다. 어렵다고 소문난 마르크스 《자본론》의 핵심적인 내용을 누구나 알기 쉽게 전달하고, 그 외에 마르크스 사상의 핵심적 요소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 유물론을 다루며 자본주의의 모순을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에 대한 고민과 전망을 다루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이 강좌가 마르크스 《자본론》 1, 2, 3권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지는 않는다. 그러기에는 한 학기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 이 책을 통해 《자본론》의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더욱 관심이 생긴다면, 시간을 내 《자본론》을 직접 읽기를 권한다. 이 강의를 듣고 난 후라면 《자본론》을 한결 쉽고 재미있게 읽어 내는 자신을 발견하고 약간의 놀랄 것이다.



우리학교에서 피를 두르고 있는 나무는 거의 대부분 참나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보호해야 하는 참나무

우리학교 꽃 이야기 (15)

안범철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

학교에 있는 나무를 조금만 유심히 관찰하였다면 2~3년 전부터 어떤 나무에 노란색이나 갈색의 피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우연히 어떤 학생들의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한 학생이 자신 있게 저 피는 나무가 겨울에 추울까봐 둘러놓은 것이라고 하였고, 다른 학생은 그럼 왜 다른 나무는 안 두르고 몇몇 나무만 둘렀느냐며 또 질문을 하였다.

그에 처음 이야기 한 학생은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돈이 없나보지...” 이때 알지못하는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미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아서 조용히 지나가야만 했었다. 그 피는 겨울을 제외한 모든 계절에 두르고 있기 때문에 추위를 방지해주는 기능은 아니다.

나무에게 추위를 대비하기 위한 것은 짙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다른 나무에는 없고 몇몇 나무에만 있는데 그 나무들은 모두 참나무과[Fagaceae] 참나무속[Quercus]에 속하는 나무들이다. 그럼 왜 참나무과에 속한 몇몇 나무에만 비닐을 둘러 놓았을까? 그 이유는 조금 가까이 가서 보면 비닐에 여러 가지 곤충이나 벌레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비닐은 참나무시들음병을 옮기는 딱정벌레의 일종인 “광통긴나무좀”을 잡기 위한 끈끈이가 이 피의 정답이라 할 수 있다. 참나무시들음병은 참나무에서 사는 광통긴나무좀에 있는 Raffaelea속의 곰팡이가 원인이며, 산림과학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인은 기후변화에 의한 특정종의 이상증식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전국적으로 참나무시들음병에 걸려 많은 나무들이 말라서 죽었고, 우리학교에서도 일부 참나무 종류가 고사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학교에 있는 대부분의 참나무에는 이 피를 둘러서 참나무시들음병을 방제하고 있다. 다시 생각하면 우리학교에서 피를 두르고 있는 나무는 거의

의 대부분 참나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참나무라고 하는 것은 졸참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신갈나무, 상수리나무, 루브라참나무 등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참나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나무는 없지만 일부는 상수리나무를 참나무라고 하기도 한다. 참나무의 열매를 도토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먹는 도토리는 대부분 상수리나무 열매를 먹기 때문에 상수리나무를 도토리나무 또는 참나무라고 하기도 한다.

이 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청설모와 다람쥐의 중요한 먹이다. 언제부터 뉴스나 신문을 보면 숲속에 도토리를 사람들이 모두 갖고 가서 숲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이런 기사 내용이 우리학교도 예외는 아닌듯하다.

식물조사를 위해서 고향산을 다니다 보면 가방에 도토리를 한가득 담아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학교구성원 같지는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학교에 있는 도도

리를 주우러 다니는 것 같다. 교내에 많던 다람쥐나 청설모가 요즘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먹을 것이 없어진 것인지 참나무시들음병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바위틈을 뛰어다니는 다람쥐가 많이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사람은 도토리를 한가득 가지고 가도 도토리묵 한번정도 밖에 못 먹지만 다람쥐는 개체수가 줄어들 정도로 중요한 식량이 없어지는 것이다. 시장에 가면 좋은 품질의 도토리를 팔고 있는데 굳이 학교 뒷산의 도토리까지 가지고 갈 정도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전부터 참나무는 우리 주변에 많았으며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열매인 도토리는 먹었으며, 낙엽은 땀감으로 사용되었다. 나무는 솥이나 장작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농기구, 가구, 건축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 나무이다. 유럽에서는 Oak라고 하여 술통을 만들어 사용하며, 숲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다. 개하고자 한다.

참여마당

김영은
생체의공학 2014



서울-국제 법적으로 한 학교 하지만 인식은...

얼마 전, 페이스북 ‘경희대학교 대나무숲’이라는 페이지에 “설캠님들은 국캠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 아는 설캠 애는 국캠 무시 켜는데” 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이 게시된 후, 경희대학교 학생들의 수많은 댓글이 이어지고,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국제캠퍼스 학생들은 자신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가 서울캠퍼스에 합격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마치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은 댓글의 내용은 ‘무시할게 뭐 있나요, 어차피 배우는 학문이 다른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경희는 하나입니다.’ 라는 글이었다. 이처럼 경희대학교 학생이라면, 양 캠퍼스 모두 본교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제캠퍼스는 ‘분교’라는 인식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 나에게 학교를 물어보았을 때, 경희대학교라고 대답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이어진 대화중에 국제캠퍼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대방은 조금의 실망스런 반응을 보이곤 한다. 또한, 수많은 대기업에서 국제캠퍼스를 아직까지 분교로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법적으로 하나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캠퍼스가 ‘분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경희대학교는 1999년부터 사회과학대학, 체육대학, 국제-경영학부 등의 캠퍼스 간 중복 학과를 하나로 통합하고, 명칭을 수원캠퍼스에서 국제캠퍼스로 변경하며 서울-국제캠퍼스 간 통합에 박차를 가했다. 이전부터 이원화로 운영해오고 있던 하였으나, 2011년 8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의 통합 승인을 받아 비로소 분교라는 타이틀을 벗게 되었다. 이후 양 캠퍼스의 행정, 재정이 통합 운영되고 있고, 현재는 학교코드, 졸업장 또한 동일하다.

이렇듯 법적으로 하나의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캠퍼스가 ‘분교’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만큼 학교뿐만 아니라, 경희대학교 학우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SNS에서 시작된 양 캠퍼스 학우들 간의 대화는 그 변화에 긍정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현 시대의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크인 SNS를 활용한 홍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지금의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본교통합에 대한 관심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되어야한다. 진정으로 하나된 경희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만히 앉아 억울한함을 호소하는 일보다, 함께 공유하며 변화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

▶1면에서 이어짐

자청한다. 그러나 군인의 임무로 당연히하며 수행했던 민간인 살해행위는, 제대 후 일상의 삶을 살면서 지속적인 회한에 사로잡히게 하는 탓이 된다. ‘무고한 여인을 죽여야만 했던가?’ 하는 반성적 회이에 빠져 정상적인 삶을 지속하지 못하고 방황의 나날을 보내는 그는 ‘곰의 잠’으로 가사 죽음 상태로 자학하거나 술에 찌든 피폐한 생활을 지속한다. 그리고 궁극에는 형무소에 수감됨으로써 속죄하려 한다.

동호는 군대문화의 타락상에 물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혐오하다 스스로를 처벌, 자살하고 만다. 동호와의 순수하고 고결한 사랑 하나만 믿고 기다린 숙이는 동호의 어이없는 자살행위, 현대의 무책임한 행위 등에 크나큰 배신감과 좌절을 맛보지만 끝까지 삶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황순원은 작품을 통해 1953년 한국의 전후 상황을 은유하여 ‘비탈’로, 그 적박한 비탈에서



고전은 질문과 생각을 통해 인간의 존엄이 무엇인지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한다. 사진은 (태극기 휘날리며)의 한 장면

‘황순원은 작품을 통해 한국의 전후 상황을 은유하여 비탈로, 아픈 청춘을 나무로 묘사한다.

어떻게든 굴러떨어지지 않아야만 하는 아픈 청춘을 ‘나무’로 묘사한다. 비탈거리는 현실, 산비탈이라 할지라도 나무는 뿌리를 내려야 한다. 어떻게? 성찰과 반성으로, ‘곰의 잠’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 두 발로 단단히 현실을 붙들고 이상은 높은 곳에, 그리하여 인간의 존엄과 희망을 사념할 수 있도록. 얼마 전 먼 곳에서 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신 손님이 청년에게 준 선물 역시 인간에 대한 존엄과 희망이었

다.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기뻐하거나, 춤추거나, 환호할 수 없다"고 강조한 그분의 말씀과 ‘곰의 잠’을 자는 현대를 통해 우울증에 빠진 청춘을 그려내어 독자를 각성시키는 작가의 전언이 뫼비우스의 띠처럼 묘하게 연결된다. 우리가 고전을, 먼 곳에서 온 손님처럼 환대해야 하는 이유는 왜? 라는 질문과 생각을 통해 인간의 존엄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볼 수 있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행복KHU심리프로젝트 “행복! 방법을 찾다”

- ※ 2014년 고교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 일시 : 2014년 10월 2일(목) 12:00~14:00
 - 장소 : 멀티미디어관 411호
 - 문의 : 학생생활상담팀 연락처(031-201-2806), 메일(counsel@khu.ac.kr)
 - 주최 : 취업진로지원처 학생생활상담팀
 - 대상 : 경희대생 누구나

- ※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특강을 추천합니다.
- 대학생활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고 싶은 사람
 -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알고 싶은 사람
 - 내 삶을 좀 더 다양한 각도로 가꾸어 나가고 싶은 사람

주요내용

- 인간의 행복과 관련된 과학적 심리실험 소개
- 행복에 대한 다양한 관점 찾기
- 지금 내 삶에서 행복 할 수 있는 방법 알기
- 대학생활에서 행복방법 적용해보기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스포츠 / 문화



‘Peace BAR Festival 2014(PBF 2014)’ 이 지난 18일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개최됐다

‘우주’에서 ‘인간’ 찾는 ‘PBF 2014’

세계평화의 날 33주년

이민교 기자 mingyo@khu.ac.kr

미래문명원은 UN제정 세계평화의 날 33주년 기념 ‘Peace BAR Festival 2014(PBF 2014)’를 지난 18일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우주의 인간, 인간의 공적 실천’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라운드테이블과 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지난 18일에는 양 캠퍼스에서 PBF 2014 심포지엄이 열렸다. 서울캠퍼스(서울캠)는 ‘COSMOS: ‘삶’을 만나다’, 국제캠퍼스(국제캠)는 ‘우주와 인간’을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국제캠 심포지엄 기조발제를 맡은 김갑성(우주과학과) 교수는 “우주 속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바로 알고, 우주와 자연의 섭리를 이해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생명과 자연에 보답하고, 나아가 대망을 갖고 생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신영각(기계공학 2009)군은 “우주를 과학뿐만 아니라 철학 등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웠다”고 말했다.

오는 22일 예술디자인대학 A&D Hall에서 열리는 개회식은 UN 반기문 사무총장, 남아프리카공화국 힐튼 안소니 데

프로그램	일시	비고
개회식 및 라운드테이블	9월 22일 13:30~17:20	국제캠 예술디자인대학 A&D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	9월 25일 14:00~18:00	서울캠 녹원
	9월 26일 10:00~17:30	서울캠
북토크	9월 26일 15:00~16:11	서울캠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

니스(Hilton Anthony Dennis) 대사, 유엔한국협회 이호진 부회장 등의 축하 영상 메시지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어서 진행되는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우주, 인간, 문명: 우주관을 통해 본 인류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금실 전 장관, 카이스트 뇌과학 연구소 김대식 소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형조 교수 등이 패널로 참가해 토론을 벌인다. 개회식 및 라운드테이블은 모두 동시통역이 지원

된다.

오는 25일에서 26일 서울캠에서 열리는 ‘UNAI ASPIRE Kyung Hee Peace Forum’에서는 ‘Post-2015: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국제개발협력력을 이룰 수 있는가’를 주제로 UN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평화 메시지 제작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26일에는 ‘대우주의 서사시, 칼세이건의 《코스모스》’를 주제로 학생이 자체적으로 북토크를 진행한다.

〈U리그 경기 일정〉

9월 26일 VS 아주대 용인시축구센터	10월 10일 VS 명지대 명지대 운동장
10월 2일 VS 동국대 용인시축구센터	



지난 8일 ‘2014 카페베네 U리그’ 11라운드에서 우리학교가 인천대와 1-1로 무승부를 거뒀다

U리그 11라운드, 인천대와 무승부

U리그 경기결과

김윤철 기자 kycxellos@khu.ac.kr

지난 8일 인천대 운동장에서 열린 ‘2014 카페베네 U리그’ 11라운드에서 우리학교가 인천대와 1-1로 무승부를 거뒀다. 우리학교는 이번 무승부로 동국대와 승점이 같은 공동 2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동국대가 U리그 후반기에 연세대와 제주국제대를 차례로 격파하

며 기세를 올리고 있어 2위 수성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학교는 오는 26일 용인시축구센터에서 열리는 12라운드 경기에서 아주대와 맞붙는다. 우리학교는 아주대와의 경기를 포함해 동국대, 명지대 등과 총 3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2014 카페베네 U리그’에서는 권역별 3위까지 우선적으로 U리그 왕중왕전 진출권이 주어지는 만큼 남은 3경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U리그 4권역 현재순위〉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경기수
1	고려대	24	7	3	0	10
2	경희대	19	5	4	2	11
3	동국대	19	6	1	2	9
4	인천대	16	4	4	2	10
5	연세대	15	4	3	5	12
6	아주대	12	3	3	5	11
7	명지대	11	3	2	6	11
8	제주국제대	3	1	0	11	12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취업의 길을 찾자!

‘…….
금방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 버렸으리라
…….’
〈자급하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중에서

- ◆ 삶의 길을 묻는 그때 : 1,2,3학년 진로 및 취업관련 상담
- ◆ 금방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져야 할 그때 : 4학년 1:1 취업진로 지원
- ◆ 대 상 : 국제캠퍼스 재학생, 졸업생
- ◆ 도움 줄 내용 : 입사희망기업 선배매칭, 자기소개서 리뷰, 기업별 면접정보, 기업재무제표관련 설명 등 사회를 보는 눈
- ◆ 도우미 : 노동섭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장 겸 학생생활상담팀장) 윤재훈 (취업진로지원처 경력개발팀 계장)
-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수업/성적/상담 → 상담예약신청 → 취업선택 → 상담가능일확인 후 신청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부 : 노동섭 팀장(rohds@khu.ac.kr) 윤재훈 계장(jhyoon@khu.ac.kr)
 - ※ 종합정보시스템 예약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송부 두 가지 모두 진행해야 신청완료
 - ※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자유양식이며,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career.khu.ac.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장 소 : 학생회관 1층 취업진로지원처 상담실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졸업과 동시에 내 “명함” 뿌리자’

2014-2 취업동아리 모집

대학본부에서는 여러분의 취업성공을 위해 동아리를 만들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3학년 2학기 ~4학년 2학기 재학생(졸업유예/수료생 포함)
- 신청기간 : 9월 17일(수) ~ 10월 1일(월)
- 기간 : 2014년 10월 6일~2014년 12월 5일(9주간)
- 인원 : 약 150여명 (선착순 모집)
- 팀원 : 1팀은 7~10명(팀구성 = 직무별, 지원분야별)
- 지원자격
 - 평균평점 : 3.0이상
 - 제출서류 : 이력서(자유양식), 자기소개서(자유양식), 취업동아리 운영계획서
 - ※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취업동아리 운영계획서)
- TOEIC점수 : 3학년 650점 이상, 4학년 750점 이상
- 활동지원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삭
 - 직무별 맞춤 동문멘토 SYSTEM 운영
 - 전체 특강(인성, 비즈니스매너 등)
 - 팀별 특강
 - 모의면접(인성, PT)
 - 개별상담, 팀 상담
- 활동내역
 - 팀별 활동 계획으로 취업 - 진로의 실질적 과정 준비
- 지원금
 - 1인당 취업활동 지원비 30,000원 지원
- 지원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인터넷신청 → 연수신청 → ‘2014-2학기 취업동아리’ 신청하기
 - 신청 후 제출서류 메일로 송부 (career@khu.ac.kr)
- 합격확인
 - 합격자는 10월 6일 오후에 개별 연락
- 문의 :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031-201-3061~9(윤성필 객원교수)

국제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Lion Annual Fund

월 만원으로 학교사랑, 후배사랑 실천

천명이 사랑을 전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명이 응원을 하면
최적의 학습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십만명이 힘을 합치면
단과대학과 기숙사, 도서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경희를 발전시키는 '저력'입니다

대 외 | 서울 02-963-4874~6 하나은행 278-810023-98605 khsa0028@khu.ac.kr
협 력 처 | 국제 031-201-3190~1 하나은행 428-141962-19304 future.khu.ac.kr